

Online Series

2021. 01. 29. | CO 21-05

통일인식에 대한 3가지 착각: 더닝-크루거 효과를 중심으로1)

박 주 화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우리 국민은 북한 문제에 있어 '지식의 착각'이라고 불리는 더닝-크루거 효과를 보였다. 북한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수준을 과소평가하는 반면, 북한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수준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지식수준은 세대 간 차이가 없었지만 20대는 자신의 지식수준을 과소평가하며, 기성세대는 자신의 지식수준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더닝-크루거 효과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서론

인간은 착각의 동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수준, 건강상태, 사회성 등을 평균 이상으로 생각한다. 이런 '우월성 착각'은 갈등 상황 속에서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동기로 작동한다. 하지만 '우월성 착각'이 갈등 해결에 장애물로 작동할 수 있다. 남북관계와 같은 고착화된 갈등 상황 속에서는 나와 상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글에서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에

1) 본 글은 2020년도 통일연구원 일반과제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과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북한에 대한 지식은 O, X 퀴즈 형식으로 아래 10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²⁾ 다음으로 북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응답자들은 10개 문항에 응답한 후 자신의 정답 수를 예상하였다(이하 기대지식). 응답자들이 맞춘 정답 수의 평균은 5.3개, 응답자들이 예상한 정답 수의 평균은 5.5개였다.³⁾

<표 1> 북한에 대한 지식을 측정한 10개 문항

No.	정답 O	정답률
1	북한의 공식 국명(國名)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83.9%
2	북한의 국가(國歌)는 애국가이다.	15.1%
3	북한에서 국가의 최고 직책은 국무위원장이다.	60.1%
4	북한교육과정에서 제1외국어는 영어이다.	30.9%
5	북한에서 주택소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개인 간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66.6%
	정답 X	정답률
6	북한의 국화(國花)는 진달래이다.	51.1%
7	북한에도 장마당, 농민시장 등 시장이 있지만,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 시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36.3%
8	북한에서 추석과 설날은 명절이지만 제사나 차례를 지내지는 않는다.	60.5%
9	김정은은 김정일의 첫째 아들이다.	82.1%
10	북한은 상해임시정부가 아닌 블라디보스토크 대한광복군 정부의 법통을 인정하고 있다.	47.2%

착각 1. 북한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인식이 긍정적일 것이다.

합리적인 인간의 태도는 팩트와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통일과 북한에 대한 지식이 통일인식 변화에 기초가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 지식,

2) 2020년 3월~4월 일반 국민 1,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1번~5번의 정답은 O, 6번~10번의 정답은 X이다. 10개 문항은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자세한 통계치는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과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OX 형식, 즉 우연히 정답을 맞힐 확률이 50%이기 때문에 평균이 5개 내외로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별 문항의 정답률이 상이하다는 점, 응답자들의 정답 수 분포가 거의 완벽한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점에서 본 결과가 우연의 일치라는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

있는 그대로의 북한에 대한 이해가 통일인식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하지만 통계적 분석결과 이러한 기대는 착각임이 드러났다. 북한에 대한 지식과 통일지향성과 분단지향성의 관련성을 살펴본 상관분석 결과, 북한에 대한 지식은 남북관계에 대한 두 지향성과 사실상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통일지향성과의 상관 = 0.03, 분단지향성과의 상관 = 0.01).⁴⁾ 오히려 통일 및 분단에 대한 태도와 상관이 있는 것은 기대지식이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의 통일인식은 북한에 대한 객관적 지식수준이 아니라 북한을 잘 알고 있다는 주관적인 신념에 의해 더 잘 설명되고 있었다.

<표 2> 북한에 대한 실제지식 및 기대지식과 분단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

	기대지식	통일지향성	분단지향성
북한지식	0.01	0.03	0.01
기대지식	-	0.13**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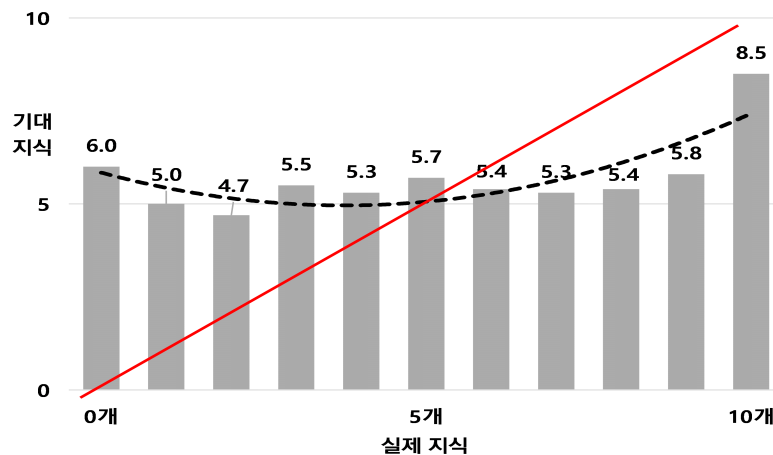
* $p < .05$, ** $p < .01$

착각 2. 우리는 자신의 지식수준을 정확히 알고 있다.

통일인식이 객관적 지식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수준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받는다면 지식수준에 대한 자기평가의 정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평균만 놓고 본다면 우리 국민은 자신의 지식수준을 비교적 정확히 인식하는 것처럼 보인다(실제지식: 5.3, 기대지식: 5.5). 하지만 이 결과는 자신의 지식을 과소평가하는 집단과 과대평가하는 집단의 특성이 산술적으로 결합된 ‘평균의 함정’임이 드러났다.

4) 통일지향성은 남북이 단일국가를 이루는 것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분단지향성은 통일이 아닌 평화적 공존을 선호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지면의 제약으로 구체적인 문항은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과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북한에 대한 실제지식 수준에 따른 기대지식 수준



<그림 1>에서 가로축은 북한에 대한 10개 질문을 정확히 맞힌 숫자(실제지식)이며 세로축은 자신의 정답 수에 대한 기대(기대지식)를 의미한다. 만일 우리 국민이 자신의 지식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있다면 실제지식과 기대지식의 관계는 붉은색 직선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자기 평가는 “정확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북한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은 사람들(정답 수: 0~4개)은 자신의 지식수준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반면, 북한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수준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본 결과를 통해 우리는 적어도 두 유형의 무지를 발견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장 좋지 않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자기 실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현상’으로 알려진 ‘더닝-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정치적 이슈에서 더닝-크루거 효과가 발생할 때, 즉 자신의 무지에 대한 무지, 자신의 유식에 대한 무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담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정치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사회적 합의는 어렵게 된다.⁵⁾ 본 연구에서 관찰된 ‘더닝-크루거 효과’는 통일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지 않는지 그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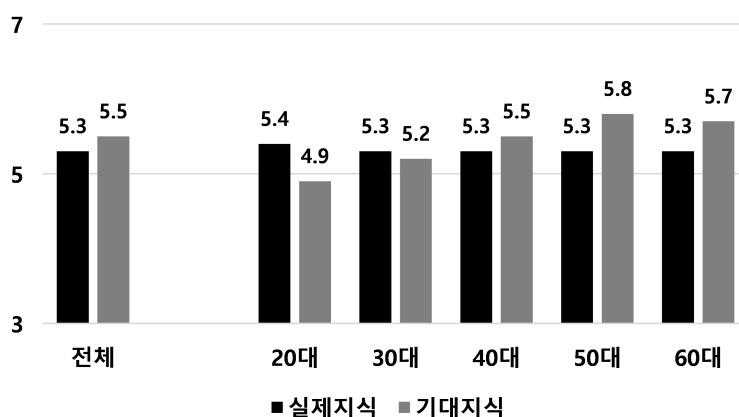
5) Ian G. Anson, “Partisanship, Political Knowledge, and the Dunning-Kruger Effect,” *Political Psychology*, vol. 39, no. 5 (2018), pp. 1173~1192. 이 논문에 대한 개관적 설명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정치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정치 잘 안다’ 착각(연구),” 『나우뉴스』, 2018.4.23.,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423601005>> (검색일: 2021.1.23.).

착각 3. 2030은 북한에 대해 잘 모를 것이다.

통일인식에 대한 두 번째 착각이 나에 대한 것이라면 세 번째 착각은 타인에 대한 것이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2030세대의 북한에 대한 지식수준이 기성세대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20대와 30대, 특히 20대는 자신의 지식수준을 과소평가하는 반면 기성세대는 자신의 지식수준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다.⁶⁾ 왜 기성세대는 자신의 지식수준을 과대평가하고 있을까? 한 가지 가능성은 북한에 대한 관심, 통일에 대한 희망이 북한에 대해 알고 있다는 느낌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

한편 <그림 2>는 왜 우리 사회가 2030세대가 북한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실제지식 수준이 아닌 자신들이 북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근거해 2030세대를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2030세대 역시 자신들의 지식수준을 실제지식이 아닌 기성세대의 비판에 근거해서 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무지에 대한 무지, 더닝-크루거 효과가 북한에 대한 지식, 더 나아가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의 객관적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이러한 왜곡이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과 처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는 결과이다.

<그림 2> 연령대별 북한에 대한 실제지식 수준과 기대지식 수준



6) 30대와 40대의 두 지식의 차이가 크지 않다.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20대에 비해 취업, 결혼 등 세대고유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과 알고 있다는 느낌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적 함의

‘북한에 대한 지식수준이 통일과 분단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본 조사 결과는 합리적 인간을 가정하는 전통적 접근과 부합하지 않는다. 합리적 행위자가 태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조건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글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태도 변화는 지식과 정보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정보의 수준에 대한 평가, 즉 메타인지(meta-cognition)에 의해 일어난다. 우리가 통일과 북한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본 글에서 사용한 10개 문항이 북한에 대해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할 지식인지에 대한 의문이 가능하며, 이는 타당한 의문이다. 그 의문에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 통일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의 착각』의 저자인 스티븐 슬로먼과 필립 페른벡은 ‘무지에 대한 무지’와 공동체의 상호작용은 위험한 사회적 메커니즘으로 악화된다고 지적하고 있다.⁷⁾ 북한에 대한 메타인지, 북한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토론이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사안에 대한 희망과 관심이 그 사안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치환된다면 집단극화는 불가피하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슈에 있어 메타인지를 강화하는 해법은 명확하지 않다. 단순히 정확한 정보에 노출되는 것은 부족해 보인다.⁸⁾ 이슈에 대한 인과적 설명이 효과적이지만 통일과 같이 도덕적 판단과 가치관의 문제에서는 인과적 사고도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편향에 대한 자각, 자신과 공동체에 대한 메타인지를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 통일에 대한 우리의 메타인지가 향상되었을 때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본 글에서 제시한 결과를 통해 적어도 하나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2030세대에 대한 시각이 변화할 것이고 이는 통일에 대한 사회적 대화 틀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20년간 “통일 공감대”, “평화공감대” 확산의 초점은 2030세대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우리”는 괜찮지만 “2030”이

7) 스티브 슬로먼·필립 페른벡 지음, 문화경 옮김, 『지식의 착각』 (서울: 세종서적, 2018), p. 228.

8) 김현우·이종혁, “정치적 무지에 대한 무지,” 『한국언론학보』, 제64권 4호 (2020), pp. 210~246.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며 이러한 인식은 본 글에서 제시한 기대지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만일 기대지식이 아닌 실제지식에 의해 “통일공감대”, “평화공감대”를 생각한다면 2030세대가 아닌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접근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2030세대는 북한 문제, 통일 문제, 한반도 문제만 나오면 위축되고, 웬지 모를 미안함을 느낄 수 있다. 2030세대에 대한 우리사회의 사회적 압력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본 글의 결과는 2030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기성세대의 착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닝-크루거 효과’를 제안한 더닝은 ‘더닝-크루거 효과’ 속 개인의 문제는 - 2030세대가 자신의 지식수준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는 것처럼 -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⁹⁾ 자신의 지식수준을 과소평가하는 2030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자신의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기성세대가 자신의 지식과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글은 향후 통일에 대한 사회적 대화에 필요한 의제들을 보여주고 있다. 지식에만 의지한 통일지향성, 열정에만 의지한 통일지향성의 한계를 직시하고 지식과 열정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세대 간 소통에 있어 지식과 기대와 같은 이슈에 기반한 토의가 이루어진다면 세대의 차이는 오히려 통일에 대한 지향성을 강화시키는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KINU 2021

“이 시대의 아픔 중 하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무지한데, 상상력과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의심하고 주저한다는 것이다” - 버트런드 러셀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9) “The Anosognosic’s Dilemma: Something’s Wrong but You’ll Never Know What It Is,” New York Times, <<https://opinionator.blogs.nytimes.com/2010/06/20>> (Accessed: January 24, 2020).